

# 장성군, 15개 사업 추진 민생경제 살리기 총력

## 농어민수당 3월말까지 지급 지역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베타 재배 농가 경영 안정자금 등 "취약계층 위주 핀포인트 지원"

장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서민경제 부양을 위해 지원이 시급한 분야부터 긴급 수혈에 나선다.

장성군은 군민들이 즉각 혜택이 돌아 가는 '106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15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장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정책발행' 사업이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결혼축하금, 전입 장려금 지급 등에 57억원을 책정하고 이중 54억원을 3월말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

할 예정이다. 상품권 할인율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0%에서 15%까지 높이고 1인 구매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군은 '2025년 장성 방문의 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위생업소와 영세음식점,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총 22억1500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환경개선과 공공요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안정과 소득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버스·택시 운전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내 농촌·전세버스 종사자와 개인·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어르신 겨울철 난방비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부식비 지원, 벼 재배 농가 긴급 경영 안정자금 등에 4억4000

만원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업체 경영 안정을 위해 공사, 용역, 소규모 영세상가 등에 대한 대금 지급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예상되는 금액은 약 800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상 사업 106억원을 더하면 총 906억원에 달한다. 장성군 올해 본 예산 5708억원의 16%에 해당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 위주로 '핀포인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며 "군민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영광군, 31일까지 접수

영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061-350-4784)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화순군, 서비스 질 향상 기대

화순군은 13일 어르신 돌봄의 기초역할을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1월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2023년 6월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관내 재가노인 복지시설 1개소에서 1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이며 2025년 1월부터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정책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기에 이번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공공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인 만큼 향후 화순군 인구 유입에도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곧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마찬가지다"며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 화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16일~31일 1만2751건 대상

화순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751건에 대해 총 1억6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7000원까지 차등 구분해 부과한다.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공통 ARS(142211)를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지만,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담양군 관계자가 취약계층 세대를 찾아 한파 발생 시 건강관리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 광주농협, 설 직거래장터 연다

22~23일 최대 30% 할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설을 앞두고 소비자와 농축산 조합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직거래 장터를 연다.

농협광주본부는 오는 22~23일 이틀간 광주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설 명절 직거래 알뜰장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터에선 광주지역 15개 지역 농·축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50여개의 우수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농협 유통망이 준비한 다양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도 착한 가격에 공급한다.

광주본부는 직거래장터 개장에 앞서



지난 10일 관내 회원 농협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열고 산지 직구매 품목을 선정하고 장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현호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은 "올 설에도 주요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직거래장터를 연다"며 "광주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거품 없는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 담양군, 인문학 문해교실 신규 학습자 모집

2월 3일까지 접수

담양군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학령기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오는 2월 3일까지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담양인문학 문해교실'은 각 마을에서 4명 이상이 공공시설에서 참여하는 방식과 3명 이하의 학습자에게 희망하는 장소로(가정집 포함) 찾아가는 방식으로 나

뉘어 운영한다. 문해교실은 기존 한글 교육을 기본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한 금융 및 무인단말기(키오스크) 활용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해 수업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습자, 마을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 운영 및 세부 사항은 행정과(061-380-3188)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신재현 기자

## 담양군,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담양군이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등 겨울철 한파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담 인력이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 및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한파 발생 시 건강관리 요령과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군은 현재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보건지소·진료소 직원 36명이 건강 취약계층 3219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 경로당·복지회관 방문 등을 통해 한랭질환 예방·대처 방법 안내, 안부 살피기와 혈

압·혈당 측정,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안내 등 기초건강관리 및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 유지 △외출 전 체온도 확인하기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무리한 운동하지 않기 등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한파와 잦은 눈은 어르신들에게 한랭질환 요인 등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방문간호사를 통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해 올 겨울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